

'코로나블루 극복' 마음치유 앞장

전북교육청, 위기지원팀 구성... '마음치유·생명지킴' 프로그램 등 지원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 우울 예방 및 위기극복을 위해 위기지원팀을 구성, 마음건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생들의 자살, 자해를 예방하고 마음치유를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초·중·고·특수 학교 97개교에서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학교에는 자체(설)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과 위험군 학생을 위한 상담 및 병원치료비도 지원된다.

상담은 24시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117 전문상담사들이 전화, 문자,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코로나9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마음건강심리검사지를 활용해 고위기 학생을 찾아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음진단을 희망하는 학교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학생을 파악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학교 자문의사단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자문의사단 11명은 학교와 연계해 고위험군 학생 1:1 상담을 진행

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생명지킴

교육연극도 4~12월 32개교에서 진행했다. 연극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효과적인 생명존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생명지킴이(게이트 키퍼) 교육 참여도 노력하고 있다. 이 교육은 자살예방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14세 이상)은 누구나 수강 가능한 것으로,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에 안내했다.

한편 내년 3월에는 병원형 위(Wee)

센터가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병원형 위센터는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상담·진단·전문적 심층치료와 대안교육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건강한 학교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은 정신건강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 의에서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속직기관, 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직자들의 정신건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안계혁 교수

한국탄소학회 학술상



전주대는 안계혁 교수(탄소나노신소재 공학과)가 '2020년도 한국탄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탄소학회의 학술상은 한국탄소학회 학술지인 Carbon Letters(SCI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숫자와 우수성을 종합 평가해 접수가 가장 높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안 교수는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40여편을 게재하는 등 탄소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안 교수는 에너지 저감용과 환경용 탄소소재의 합성, 제조 및 성능 평가와 응용,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및 개발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고성능 다기능성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제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연구해오며 차세대 첨단소재인 탄소 섬유의 발전과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이번에 수상한 한국탄소학회 학술상뿐만 아니라 전주대에서도 2020년 우수 연구교원상을 수상하는 등 그 연구실적을 대내외로 인정받고 있다.

안계혁 교수는 "탄소 소재는 강하면 서로 가벼운 첨단 미래소재로 무궁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탄소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해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수준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둡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권대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장이 전북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도내 창업생태계 조성 공로

한편 권 센터장은 기술창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디수의 산학협력 연구실적, 기술이전 실적, 특히 출원 및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부터 대학 내 기술사업화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창업지원단장(창업보육센터장, 회장전북 POST-BI 센터장 겸임)을 맡아 20여개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며 성공적인 기술창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전북지역 창업보육협의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권대규 센터장은 "지역 거점대학의 창업지원기관으로서 도내 창업자 육성과 기술 창업기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영화 '수네VS수네' 시청하세요

전북교육청, 온라인 라이선스 구입 무료 제공

전북교육청이 코미디 가족영화 한 편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영화 '수네 VS 수네'의 온라인 라이선스를 구입, 네이버(NEVER)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영화 라이선스 구입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 위탁해 이뤄졌다.

영화 '수네 VS 수네'는 초등학교 남학생이 4학년이 된 첫 날부터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코미디 가족 영화다.

2019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제작위원회 제작부문 최우수장면 영화상과 관객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는 전북의 학생·학부모,

/정은성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해단식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은 17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해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총 11명의 수료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취업지원 실과 함께 부서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안내 및 정부 청년 고용정책 등을 발 빠르게 확산, 공유하는 역할을 북돋히 해왔다.

호원드림업 서포터즈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참여 프로그램 경험담과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개발한 컨텐츠로 재학생과 지역청년들에게 폭넓은 홍보 활동을 맡아왔다.

참여자 11명 전원에게 호원드림업

서포터즈 인증서가 수여됐고, 총 활동비 300만원을 활동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선배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재선 취업지원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 시행한 서포터즈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대면 진행(온라인)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컨텐츠로 활성화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생활현안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전북대학교가 미세먼지, 악취, 교통 등 지역의 3대 생활현안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랫동안 미세먼지와 악취, 교통 문제를 호소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 현안에 대한 지역 민들의 시각에서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은성 기자



2020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비로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듣게 되었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를 듣는 만큼
지구의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일을.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어깨동무하듯
지구의 생명들과도
어울려 살아가는 일을.

2021년, 다시 환경 감수성을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